

교황을 알현한 4인의 덴쇼켄오 사절단

예수회의 순찰사 알렉산드로 발리냐노는 일본에서 유럽에 사절단을 파견할 것을 제안했다. 1582년, 아리마의 세미나리오(수도사 육성을 위한 초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4명의 소년으로 구성된 덴쇼켄오 사절단이 나가사키를 출발했다. 마카오, 고아, 희망봉을 경유한 후 마침내 리스본에 도착한 사절단은 스페인 국왕 펠리페 2세와 그레고리오 13세, 식스토 5세 두 명의 교황과 알현했다.

1571년 이후, 포르투갈 선박의 일본 입항을 통한 무역을 계기로 통상의 거점으로 자리잡은 나가사키에는 수많은 유럽 상인들과 선교사들이 거주했다. 1580년, 기리시탄 다이묘 오무라 스미타다는 나가사키를 예수회에 헌납하고, 예수회는 이후 7년 동안 나가사키를 통치했다. 이 기간에는 나가사키의 마을 중심에 10개가 넘는 교회당이 건립되었다.

(삽화: 쇼지 요시타카)